

‘기업 氣살리기’ 지원책 풀가동

광주지역 기업지원기관들이 신년 벽두부터 ‘지역기업 살리기’와 역의 기업유치에 적극 나선다. 이들 기관들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풀가동, 기업들의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매출확대를 돕고 고용창출을 모색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올해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기술창업 선순환시스템 구축, 연구개발(R&D), 기술혁신공동체 활성화 등 기업중심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오는 3월 준공예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세계적인 연구개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자동차 전장부품

광주지역 기업지원기관 신년 계획

신제품·신기술 개발 ... 매출 확대

역외 기업유치·고용창출 모색도

생산지원사업’에서는 해외시장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관련 기업들의 홍보시기를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LED(발광다이오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오는 1월16~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FOE 2008’,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SVIAZ EX-PO 2008’에 참여할 회원사들의 참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수

출증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게 된다. 진흥회는 일련의 사업을 통해 연간 8천만달러의 수출 증대효과와 13개 업체 11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LED 신호·조명분야를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9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올해 ‘지역 하위장재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하우징

관련기업이나 제품디자인브랜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디자인센터는 LED조명을 포함한 기존 제조업체들의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전문인력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기업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전남 고용포럼 운영 ▲광주 e-학당’ 교육 등 중소기업 서비스사업 ▲개성공단 투자사업 설명회 등 남북경제교류사업 등을 전개한다.

또 광주·전남경총도 고용지원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외에 취약사업장 및 업종별 교육연수사업을 통해 지역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국민·공공임대 을 5천여가구 공급

주공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의 주택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광산구 수완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4천여가구의 국민·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주택난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5천 279가구의 국민·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올해 3천 985가구의 국민·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최근 남구와 서구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수완지구 등 5개 지구에서 총 3천653가구가 공급되며, 입주 5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은 332가구에 달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5월께 수완지구(332가구)에서 선을 보인다. 전남에서는 3~4월께 목포 옥안지구에서 1천29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 ▲월평균소득 241만원 이하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2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주공의 전국 주택공급 규모는 총 8만9천255가구로, 이 가운데 46%인 4만1천8가구가 수도권에 들어선다. 수도권의 경우 민간업체까지 합할 경우 올해 총 3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현 주공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국민임대주택은 품질이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주공의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도위험이 없는 만큼 서민들의 전세난 해소에도 기여도가 높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리 쌀 먹읍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 임직원들이 지난 1일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안전지킴이’ 캠페인과 함께 쌀 소비촉진행사를 펼치고 있다. (홍관원전남지원제공)

광주상의 14일 의총

이승기 회장 합의추대 의결

광주상공회의소 19대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상공의원총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일후보인 이승기(삼승건설 대표) 상공의원에 대한 합의추대를 의결하게 된다. 이 의원은 42명의 상공의원 가운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새 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후임회장은 오는 2009년 3월까지 1년 3개월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한편 현 박홍석 직무대행은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일반-전문건설 ‘장벽’ 사라진다

30년만에 겸업제한 폐지 ... 상호시장 진출 허용

올해부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을 담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던 겸업제한이 30여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벌여

졌던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할 필요도 없어졌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업체로 등록할 경우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가 일반업체로 등록할 때는 최대 60억원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해 준다.

개정 법률은 또 다단계하도급과 건

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됐던 시공참여제도를 폐지했으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등에 대한 재하도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강화됐고, 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공공사는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건설업체가 시공중 5명 이상 사망 사고를 일으킬 경우의 제재는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 3억원에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으로 강화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국세청 ‘폭설피해’ 법인세 연장 등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정민)은 지난해 말 이후 계속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

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집단피해지역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서번트 리더십’ 실천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허낙석) 임원진은 2일 사원식당에서 일일 배식자로 나서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몸소 실천했다.

(광양제철소제공)

중흥건설 임원급 정기인사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은 지난 1일 한광선 상무를 기획부 전무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1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면)

신인 한 전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업무, 분양홍보 등 회사의 중추 업무를 맡게 된다.

한 전무는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1년 중흥건설에 입사한 뒤 기획부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이길호 상무가 건축부 전무로 승진됐으며, 이상만(경리부), 박재현(업무부), 류재길(토목부·이상 상무) 등 5명이 전무로 임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 얼 굴

“고품질 물자·시설 적기 공급 최선”

나 영 주 광주지방조달청장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수요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물자·시설·용역을 적기에 공급, 지역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일 부임한 나영주(55)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 청장은 또 “조달업무 협정체결을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고객과 지역민이 서로 만족하는 윈-윈

전략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양 출생으로 광주 송일고와 인하대를 졸업한 나 청장은 1981년 조달청에 몸담은 이후 본청 시설국 기술심사담당, 국책사업담당,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장 등을 거쳤다. 부인 이효례씨와 3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

행사기간 : 12월 1일(토) ~ 1월 6일(일)

※모든 회원님 감사의 마음으로 TV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1. WEGA 42인치 1000시리즈 1대 1명

2. WEGA 42인치 1000시리즈 2대 1명

3. WEGA 42인치 1000시리즈 3대 1명

4. WEGA 42인치 1000시리즈 4대 1명

5. WEGA 42인치 1000시리즈 5대 1명

6. WEGA 42인치 1000시리즈 6대 1명

7. WEGA 42인치 1000시리즈 7대 1명

8. WEGA 42인치 1000시리즈 8대 1명

9. WEGA 42인치 1000시리즈 9대 1명

10. WEGA 42인치 1000시리즈 10대 1명

062-522-2000

日食 미도 확장개업

드림반, 상원대추반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업15주년을 맞이하며 일식 미도가 새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시설로 25층 확장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운 예약장은 카운터도 생겼습니다. 또 시설을 보셨습니까?

프리미엄 커피 특별행동

세미나·가족·집대모임은 일식미도 미도에서

●단체 20%, 50% 가능 ●일시주차 50대 가능

●특별 이벤트 및 상품전시 부트루프(점심) 무료

광주광역시 동구 구암동 234-0001 (구암동 234-0001) ☎ 234-0001